

[포토뉴스] 대전시 꿈씨 패밀리 신규 캐릭터 3종 공개

이영호 기자 | 승인 2026.04.27 15:23

'꿈순이 엄마·아빠와 반려고양이가 놀러왔어요'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시는 27일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꿈씨 패밀리 캐릭터 세계관 확장을 위한 신규 캐릭터 3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는 꿈순이의 부모 캐릭터 '온솔'과 '온빛' 그리고 반려묘 '젼냥이'로 지난해 대전 0시 축제에서 꿈돌이의 부모인 금돌이와 은순이가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꿈순이 부모님이 새롭게 등장해 캐릭터 구성을 확장했다. 특히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기획부터 디자인, 세계관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돼 완성도를 높였다. 신규 캐릭터는 '클로버와 하트'를 핵심 모티브로 한다. 클로버는 행운과 성장, 희망을, 하트는 사랑과 소통, 따뜻함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대전시 제공



